

요약

2022년 2/4분기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4분기 사이에 근로자 가구의 경우 실질소득과 실질소비 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실질소득과 실질소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근로자 가구의 전체 소비는 유사함에도 세부항목별로 보면 자동차 구입 및 의료 관련 실질 지출은 증가하고 연료비와 보험 등은 감소하였음. 특히, 보험의 경우 전체 소비가 증가한 자영업자 가구에서도 실질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데다 2022년에는 그 감소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2/4분기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경제가 코로나19 전후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 볼 필요가 있음
 - 2022년 4월에는 거리두기가 대폭 수정되면서 자영업 운영 시간, 사적모임, 종교활동 등에 대한 제한이 크게 완화되었고, 5월부터는 실외마스크 의무가 사실상 해제됨
 - 또한 2022년 3월 말부터 5월까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4차 재난지원금이 대규모로 지급됨
 - 본고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4분기와 이후인 2022년 2/4분기 사이의 가계 소득과 소비지출을 비교함으로써 코로나19 전후에 나타난 가계 경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함
- 2022년 2/4분기와 2019년 2/4분기 사이에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2020년 기준)과 실질소비는 거의 동일한 수준인 반면, 자영업자¹⁾는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질소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2022년 2/4분기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2019년 동기 대비 0.08% 감소하여 거의 동일한 수준을 나타낸 반면,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24.44%나 상승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²⁾
 - 자영업자의 경우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공적 이전소득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소득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³⁾
 - 근로자 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실질처분가능소득과 실질소비도 각각 0.27%, 0.61%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코로나 19 전후에 사실상 동일한 소득 및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공식적인 용어는 '근로자와 가구'이나 대부분이 자영업자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고는 편의상 '자영업자 가구'로 표기함
 2) 주로 활용되는 경상 기준 자료의 경우,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가 같은 기간 각각 7.95%, 8.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3) 자영업자 가구의 주 소득원인 사업소득(실질)을 보면, 2020년 2/4분기(1,596,759원) 2021년 2/4분기(1,650,370원) 모두 2019년 같은 기간(1,737,702원)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2022년에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실질처분가능소득과 실질소비가 같은 기간 각각 29.87%, 7.27%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의 소득과 소비 증가율의 차이가 큰 것은 소득 증가를 주도한 재난지원금이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부만 소비 증가로 반영된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1〉 코로나19 전후 실질 가계 소득 및 소비 비교

(단위: 월 평균 원)

구분	근로자 가구			자영업자 가구		
	2022. 2/4	2019. 2/4	증가율(%)	2022. 2/4	2019. 2/4	증가율(%)
소득	4,909,523	4,913,392	-0.08	3,873,449	3,112,592	24.44
근로소득	4,103,500	4,215,804	-2.66	578,902	522,112	10.88
사업소득	224,207	229,840	-2.45	1,807,492	1,737,702	4.02
재산소득	23,150	50,240	-53.92	41,058	38,268	7.29
이전소득	485,259	372,050	30.43	1,342,932	738,337	81.89
(공적)	342,184	201,358	69.94	1,060,607	482,399	119.86
(사적)	143,075	170,692	-16.18	282,325	255,938	10.31
비경상소득	73,406	45,458	61.48	103,065	76,172	35.31
처분가능소득	3,880,645	3,870,323	0.27	3,348,537	2,578,346	29.87
소비지출	2,643,625	2,627,497	0.61	2,127,361	1,983,119	7.27

자료: 「가계동향조사」

○ 근로자 가구의 전체 실질소비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세부 항목별 소비의 경우 자동차 구입 및 의료 관련 실질소비는 증가하고 연료비와 보험 등의 실질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근로자 가구의 전체 실질소득과 실질소비가 거의 동일한 만큼 세부 항목별 실질소비의 변화를 통해 가계의 소비 선호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경상 기준 소비의 경우 소비자 선호도 증가가 아닌 물가 상승에 의해서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소비의 변화를 보는 것이 선호도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준이 될 것임
- 세부 소비지출 항목 96개 중 근로자 가구 2022년 2/4분기 기준으로 월평균 실질 지출액이 3만 원 이상인 23개 항목에 대해서 3개 그룹(증가, 정체, 감소)⁴⁾으로 나눈 결과, 의료 관련 지출과 자동차 구입, 통신, 문화서비스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연료비, 가전 및 가정용 기기, 식물 및 외의, 운동 및 오락서비스, 위생 및 이미용품, 과일, 채소, 보험⁵⁾ 등의 실질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근로자 가구에 비해 실질소비가 증가한 항목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운송기구 연료비, 가전 및 가정용 기기, 이미용서비스, 보험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항목의 실질소비 감소세는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른 항목 대비 건조한 것으로 판단됨

4) 2022년 2/4분기 실질소비가 2019년 2/4분기에 비해 3%를 초과하여 증가하면 '증가', -3% 미만 감소하면 '감소' 그 외의 경우 '정체'로 분류하였음

5)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산업 기준 보험료 자료에서 기업이 납부하는 퇴직보험, 손해보험의 일반보험 등을 제외한 것과 유사한 개념임

- 본고는 특히 보험 항목의 실질 소비가 근로자 가구, 자영업자 가구 모두에서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자 함
- 연료비와 운송기구 연료비는 가격 상승에 따라, 가전 및 가정용 기기는 코로나19 기간 중 소비 급증에 따른 반작용으로, 이미용서비스는 거리두기로부터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실질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표 2〉 코로나19 전후의 세부 항목별 소비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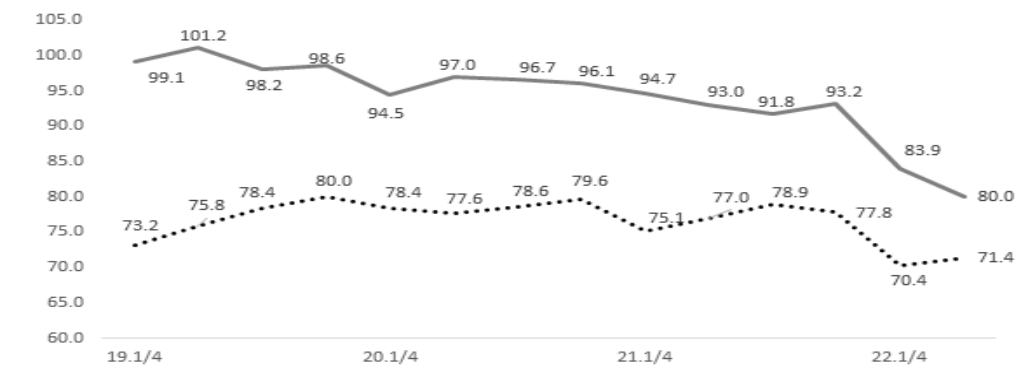
구분		근로자 가구		
		증가(> 3.0%)	정체(-3.0% ≤ x ≤ 3.0%)	감소(< -3.0%)
자 영 업 자 가 구	증 가	의약품, 치과서비스, 입원서비스, 자동차구입, 통신서비스	육류, 실재주거비, 기타주거관련서비스, 학원 및 보습학원, 식사비(외식)	과일 및 과일가공품, 식물 및 외의, 운동 및 오락서비스, 학생학원교육, 위생 및 이미용품
	정 체	외래의료서비스, 문화서비스	-	채소 및 채소가공품
	감 소	-	-	연료비, 가전 및 가정용기기, 운송기구연료비, 이미용서비스, 보험

자료: 「가계동향조사」

- 보험 실질소비는 근로자 가구, 자영업자 가구 모두에서 감소하고 있는데다가 2022년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2020년 이후에는 근로자가구 및 자영업자 가구 모두 보험에 대한 실질소비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산업 기준 보험료 자료의 경우도 최근 저축성 보험료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세가 「도시가계조사」와 같은 가계부 기반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보험 지출 감소가 2022년 더욱 빨라지고 있는 만큼, 개인 보험의 심각한 수요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림 1〉 가계의 보험항목 실질소비지출 규모 추이

(단위: 천 원)



자료: 「가계동향조사」